

韓 해외긴급구호대 44명 탄 군수송기, 카트만두 도착

열흘가량 한국인 실종자 수색·구조 지원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KDRT 대원들을 태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는 이날 오전 6시27분께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KDRT는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포함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구조전 5마리를 비롯해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도 갖고 왔다.

향후 KDRT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지난 달 28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뒤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할 예정이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 전체 20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먼저 파견했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헬기와 드론을 비롯해 육상 수색도 병행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 가며 헬기 등을 운용했지만 네팔 정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활동을 이어가는 2일(현지시간) 대원들이 네팔 라수와 지역 단체 네팔 군 기지에서 협조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 요청으로 파견된 KDRT는 더 적극적인 수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신속대응팀이 꾸린 육로수색팀은 대홍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둔체까지 진출한 상태다.

둔체는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한 아퍼트 리슬리(UT)-1 수력발전소의 상부댐인 위어댐

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이기도 하다.

KDRT는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이번 KDRT 파견은 12번째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처음 가동됐으며 2023년 큰 산불이

발생한 캐나다에도 파견됐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피해가 겹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할 긴급구호대를 요청했다.

전날까지 네팔과 인근 국경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천19명이 숨지고 4천462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백악관 “北 전제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도 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작년부터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함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美, ‘눈에는 눈’ 전략…이란정부 유조선 폭격 개시

해상봉쇄 이후 ‘유조선에 유조선’ 맞불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공격에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우고 1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미국 약시오스가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피격 이란 유조선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 북쪽인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었으며, 미군 드론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해당 선박 엔진실을 명중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약시오스는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 보복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들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란의 미 해상 봉쇄 위반을 막기 위해 썼던 기존 대응법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방공기지, 레이더 시스템, 기뢰 부설 시설, 통신 시설



이란 유조선으로 보이는 선박에 날아드는 미사일. /미국 중부사령부 배포영상=연합뉴스

등도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앞서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군은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정오(한국시간 2일 오전 1시)에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은 최근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이 지역(중동)에 배

치된 미군 장병을 상대로 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이날 미군의 공격으로 약 100개의 목표물이 공격받았으며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약 2발을 요르단으로 발사했으나 요르단 영공에 도달한 것은 절반 정도였고, 이 가운데 10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3발은 요르단에 떨어졌으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미군의 공격 후 “미국을 겨냥한 이란군의 결정적 작전이 시작됐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가 역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들을 표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계자들은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며 이란의 상선 위협 수준이 최소 한 달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뉴욕 타임스퀘어 흥기난동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사장 사망

미국 뉴욕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부사장이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경찰(NYPD)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께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7번가와 웨스트 42번가 부근에서 발생한 흥기 공격으로 뉴저지주 거주자인 에린 피아첸티(32)가 복부를 찔려 숨졌다. 피아첸티는 BoA의 글로벌 기업·투자은행 부문 부사장이었다.

BoA 대변인은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에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함께 공격받은 68세 남성은 벨뷰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격한 여성의 신원을 파멜라 시스네로스(49)라고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시스네로스가 흥기를 휘두르며 투항을 거부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관문 공항 운영 재개

지진 이전 25% 해당 수준 운영

우리의 인천국제공항에 해당하는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이 지진 발생 후 두 달여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엘나시오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발표문을 통해 국영 항공사 콘비아사가 운항하는 멕시코행 항공편이 이날 오전 10시 이륙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후 2달여 만에 여행객들이 정상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길이 열리게 됐다. 그간 국제선을 이용하려면 수도 카라카스에서 차로 2~3시간 거리에 있는 소규모 공항 발렌시아를 이용해야 했다.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카라카스에서 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데다가 국제선 규모도 베네수엘라 최대다. 그러나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라파라주(州) 마이케티아 지역에 있어 그간 재개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번 운항 재개가 완전한 기능 복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엘나시오날은 지진 이전 2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